

# 강진한우 할인 받고 반값으로 강진여행 하세요

한우·여행 연계 홍보활동 총력전  
월 2회 대도시 바로마켓 이동판매  
여행 비용 50% 20만원까지 돌려줘

강진군이 한우 생산비 증가 및 소득감소로 침체된 한우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강진 한우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강진군과 강진완도축협은 지난 24일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 바로마켓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강진 한우 이동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면서 장터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와 함께 '반값 강진여행' 알리기 캠페인을 펼쳤다.

군은 이번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매월 2회 이상 대도시 이동 판매를 추진하고, 더불어 소비촉진 홍보 행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강진 한우를 구매할 관외 지역 고객 2000명을 대상으로 반값 강진여행과 연계한 강진 한우 구매 안내를 추진, 반값 여행 + 강진 한우 판매시



강진군과 강진완도축협 직원들이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 바로마켓 직거래 장터에 참가해 방문객들에게 반값 강진여행과 강진 한우 소비촉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템을 구축한다.

'누구라도 반값+ 강진 여행'은 강진에서 소비한 여행 비용의 50%를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강진

사랑상품권으로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가족 단위에서 1인 여행자, 친구, 연인, 지인, 동호회 등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관외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여행 당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산금은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착(Chak)' 어플을 통해 당일 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가맹점 강진 판매 모든 상가에서 현장 사용이 가능하며, 강진을 떠나더라도 초록민음강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강진 한우 등 농특산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과천 바로마켓 직거래장터를 방문한 한 고객은 "이번 여름 휴가는 강진으로 방문해 지원받은 정산금으로 품질 좋은 강진산 한우고기를 또 구입하겠다"며 "고물가 시대인 요즘 여행도 하고 50% 할인받아 쇼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반값 여행 시책을 통해 강진 한우 등 우리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 강진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한우 사육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화순 운주사문화관

'사모곡, 끝없는 해원전' 개막

류현자·정선 초대 기획전

화순 운주사문화관에서 류현자, 정선 작가 초대 기획전시 '사모곡, 끝없는 해원전'이 열리고 있다.

'해원(海願)'은 지구에서 육지를 제외한 바다 전체의 의미로, 넓고 깊은 어머니의 사랑과 그 사랑을 그리는 마음을 이번 전시에 담고 있다.

전시는 오는 10월20일까지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제2전시실과 제3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화순 출신인 류현자 작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내외를 넘나드는 유명 작가로 절제된 선과 파스한 오방색을 품은 사모곡 작품들을 선보인다.

한지 재료를 통해 10년 이상 꾸준히 자신의 사유와 철학을 견고하게 표현해 온 류 작가의 조형 언어는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정선 작가는 일명 빨래판 작가로 알려져 있다.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빨래판과 닮은 한국적 재료들이 작가의 손끝을 거쳐 다양한 작품으로 탄생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작업한 석고와 닻종이 빨래판은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여운을 남긴다.

운주사문화관 관계자는 "두 작가가 각각 다른 오방색으로 빛어낸 사모곡의 향연이 더위에 지친 우리의 눈과 귀를 청량하게 씻겨줄 것"이라며 "전시 관람을 통해 각자 기억 속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을 떠올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운주사문화관 제1전시실에서는 화순 8경과 환상적 우주공간을 담은 미디어아트 '우주대탐험'이 전시 중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후기 작성하면 답례품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리뷰를 작성한 기부자에 답례품을 재차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를 통해 답례품 후기를 작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채로운 내용으로 후기를 게시하고 해당 주소를 담당자 메일로 전송하면 접수 가능하다. 이벤트는 오는 8월 31일까지다.

담양군은 현재 45개 품목, 63개 업체, 150여 개의 품질 높은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 담양군이 운영하는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 등 시설들에 무료 입장 혜택이 제공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담양군의 답례품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활발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함평군 내달 14일까지

인구·청년 2개 분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함평군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함평군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14일까지 연장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청년정책 발굴과 효과적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공모전은 당초 지난 10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연장했다.

공모 대상은 정주여건을 비롯한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 분야와 청년 주거·복지·취업·창업 등과 관련된 청년정책 총 2개 분야다.

신청은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8월 14일까지 분야별로 1인당 2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함평군은 제출된 아이디어를 실현가능성, 창의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종합 평가해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 2명(각 50만원), 우수상 2명(각 30만원), 장려상 4명(각 10만원) 등 총 8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의 최종 검토를 거쳐 관련 정책과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민께서 함평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 '무궁화공원'에 식재된 형형색색의 무궁화가 여름 개화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장성군 제공>

## 장성에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수십만 송이 만개 '장관'

무궁화공원 36개 품종 식재

전국 최대 규모의 무궁화 단지에 수십만 송이 무궁화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 '무궁화공원'에 식재된 형형색색의 무궁화가 여름 개화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장성 무궁화공원은 지난 2021년 두산그룹의 지원으로 장성공원(장성읍 중부길 36) 잔디광장에 조성했다.

장성군이 부지 제공과 기반 공사를 맡고 두산그

룹이 목목 구입과 식재 예산을 지원했다.

부지 면적 9500㎡의 무궁화공원은 국내 무궁화공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무궁화 종류도 다양하다.

36개 품종 1만여 그루의 무궁화 목목과 배달계 5종 980그루, 홍단심계 18종 5118그루, 백단심계 10종 2650그루가 식재돼 있다.

한 자리에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손꼽힌다.

지난 2022년엔 산림청이 주관한 '제9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좋지만 공원 내에 3·1운동열사 장성의적비와 6·25전쟁용사기념탑이 있어서 나라꽃 무궁화의 상징성을 오히려 담아내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올해 개화 시기는 9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수십만 송이 무궁화가 활짝 핀 장성 무궁화공원에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겨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